

광주서부교육청, 장애학생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 개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지원 '상상체험교실' 조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목적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 공간 '상상체험교실'을 조성해 개소했다.

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상체험교실'은 실감형 콘텐츠 체험(AR, XR)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됐다. 이번 시설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지원으

로 마련됐다.

'상상체험교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사랑터에 167㎡ 규모로 조성됐다. ▲AR 액션 플로어 ▲AR 모션 ▲XR 스크린 ▲3D 모션 시스템 ▲터치 테이블 ▲홀로메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앞으로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놀이 중심의 신체 운동 및 단체 활동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가상 체험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능력 향상 및 사회적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제안 교육장은 "상상체험교실이 장애학생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학생들의 미래사회 적응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함평월야중, '우리 동네 한 바퀴' 현장체험활동 실시

월야면 일대, 마을교육과 진로교육의 일환

함평월야중 전교생 44명과 진로교사 임형순을 비롯한 교사들이 '4월 7일 월야면민의 날'을 앞둔 4월 5일 월야면 일대에서 마을교육과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월야면 일대 역사유적을 탐방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인근 월야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월야면의 역사를 듣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지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월야 인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날 탐방한 역사 유적은 예덕고분군, 팔열부정려각, 달맞이공원 내 추모공간 등이다. 차량 이동 중 심수택 의병장, 안후덕 및 정진갑 애국지사 등

역사적 인물뿐 아니라 정석중 전남대 총장, 이상식 박사, 교육계 인사 등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월야 면장을 역임하고 월우회장 및 월우장학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 정근욱 씨이다.

임윤지 학생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너무나 잘 아는 곳을 예 수업시간에 탐방해야 하지?" 의아했다며 "마을 이름을 달방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었고 열부, 애국지사뿐 아니라 대학총장, 동방신기 정윤호 등 교육, 행정, 금융, 법조, 군인, 예체능계 인사들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저도 열을 계승하여 부끄럽지 않은 월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정은주 함평월야중 교장은 "중학교 시기에 자기 고장의 역사문화와 인물을 제대로 알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자기를 바로 세우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함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매년 학년별 역사문화탐방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영암교육청 Wee센터, 신학기 상담주간 운영



영암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신학기 상담주간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북중학교를 찾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주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교직원에게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어려움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담심리 매뉴얼을 소개하였으며, 간이 심리검사로 실시했다.

Wee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순천교육청, 고교 책임교육을 위한 교원 지도 역량 강화



순천교육지원청이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15교 국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수

관내 고교 국·수·영 교원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수 진행

를 실시했다. 4일에는 수학 교원, 5일에는 영어 교원 각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고교 책임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에 의한 국·영·수 공통과목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최소 성취수준이란 학업 성취를 판단 근거로,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연수는 ▷성취평가제와 성취기준 이해 ▷ 최소 성취수준 도달 여부 판단 전문 작성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교수·학습 및 평가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사례 등 순으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순천=김승호기자

강진교육청,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강진교육지원청은 4월~7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5회기로 진행되고, 비경쟁식 독서토론과 하브루타 독서토론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경쟁식 독서토론은 말 그대로 참여자가 경쟁하지 않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책을 읽고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브루타 독서토론은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토론방법이다. 질문만들기를 토대로 사고력과 언어력을 키우고, 발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의견을 교



환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병삼 교육장은 "이번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독서에 흥미를 갖게하여 평생독자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